

시인의 마음



빛나던 눈망울은 동이 터오는 아침 햇살처럼 하나의 짝이 되었다

감당하기 힘든 싱그러움 몸짓이 부럽고 부럽다 못해 질투가 난다

가고 오지 않는 수많은 청춘(青春)을 향한 이별 편지는 눈물로 마음만 적신다

청춘아, 그날처럼 막걸리 한잔이 라면, 더도 아닌, 딱, 일 초만이라도 좋다

꿈을 향한 열정과 아픔이 익어가던 그 시절이 아리고 아리기만 하다

- 박여범 시인 '청춘(青春)' 전문-

청춘(靑春)아

『시어를 담다』

청춘(靑春)은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명사다. 한창 젊고 건강한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봄철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청춘(靑春)은 언제까지나 나의 소유물이 될만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니다. 아주 사사코이 다가온 거울에 비친 자화상은 이미 세상의 모진 풍파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누가 봐도 이십 대의 탄력이 무너진 지 오래다. 그래도 마냥 우기고 싶다.

/빛나던 눈망울은 동이 터오는 아침 햇살처럼 하나의 짝이 되었다/감당하기 힘든 싱그러움 몸짓이/ 부럽고 부럽다 못해 질투가 난다. 누구나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응축함은/청춘(靑春)을 향한 이별 편지/까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인은 소리 없이 청춘을 불러본다. /청춘아, 더도 아닌, 딱, 한 번, 그날처럼 막걸리 한잔 기울일 수 없을까/ 눈물로 마음 적시다 보면, 꿈을 향한 열정과 아픔이 익어가던 그 시절

이 아리고 아리기만 하다.

눈이 부시도록 세상이 피랴게 돌아서 만물이 푸르게 된 봄철이다. 이 봄철에 이십 대의 청춘처럼, 새롭게 돌아오는 우리만의 청춘을 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나, 너, 우리 모두 손잡고 시작하는 청춘을 향해 격려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내자.



박여범

웅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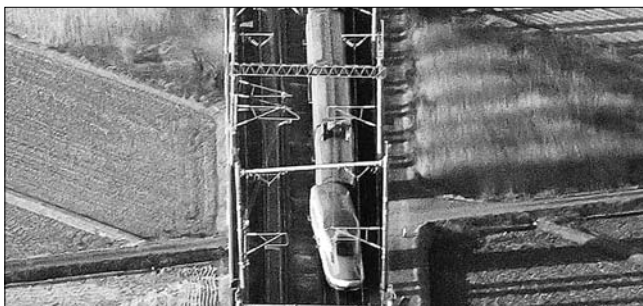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바이든 대통령 "푸틴은 전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진으로 일부 탈선한 일본 급행열차



17일 일본 북부 미야기현 시로이시에서 급행열차가 지진으로 일부 객차가 탈선해 멈춰 서 있다.

사설

시대의 지성 故 이어령

문학평론가 이어령(李御寧, 1933~2022)이 지난 2월 26일 별세했다. 그는 60년 넘게 학자·언론인·소설가·비평가 등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시대의 지성'으로 불려왔다.

그는 충청남도 아산군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의협심이 강하고 반항 의식이 있던 이어령은 열한 살 때 여거니를 여인다. 어린 나이에 겪은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훗날 그의 의식 속에 깊게 자리를 잡았다. 그는 은양국민학교와 부여고등학교를 거쳐 1952년 서울대 문리대 국문학과에 입학한다.

1956년 스물셋 젊은 나이의 그는 평론 '우상의 파괴'에서 전후 한국 문단에 본격적으로 군림하고 있던 '우상들의 파괴'를 선언한다.

김동리를 '미몽(迷夢)의 우상'으로, 모더니즘의 기수를 지쳐 하던 조항을 '사기사의 우상'으

로, 이무영을 '우매(愚昧)의 우상'으로 몰아세운다. 황순원, 조연현, 염상섭, 서정주 등 당시에 문단을 주도하고 있던 대가들을 '현대의 신라인'들로 묶어 신랄하게 비판한다.

'우상의 파괴'와 '화전민 지역', '분노의 미학', '수인의 열거' 등은 우상을 깨부수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졌다. 이어령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서울대 문리대 강사를 거쳐 1967년부터 1989년까지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로 강단에 섰다.

이 사이에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거쳤다. 1972년 문학사상을 찬양해 한국 문학을 지탱하는 문학잡지로 키워냈다.

그는 강연을 할 때 동서고금의 철학자나 문인들의 주옥같은 명구를 남다른 응용력과 상상력으로 걸러 읽어냈다. 노태우 정부 때 신설된 초대 문화부장관(1990~1991)을 지냈다. 이어령은 한 시대를 풍미한 비평가임에 틀림없다.

코로나 이후 유명호텔 폐업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곳은 비단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뿐만 아니다. 특히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호텔업계도 불황을 피하지 못했다. 제주 시내 관광호텔들의 경우 예약률이 크게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웃은 중국인 관광객이나 수학 여행단 등 단체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했던 곳이다. 그러나 진즉부터 경영난을 하소연하고 있다. 결국 제주관광의 상징이었던 유명 호텔과 나이트클럽 등이 문을 닫고 있다.

40년 넘게 제주 관광의 상징이었던 제주칼(KAL) 호텔은 수년간 이어진 영업 손실과 코로나19로 경영이 더욱 악화되면서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제주칼호텔은 1974년 지하 2층, 지상 19층(72m) 규모로 건립됐다.

이후 40년 넘게 제주를 대표하는 특급 호텔로서 제주 도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2014년 롯데시티호텔 제주(22층·89m)가 들어서기 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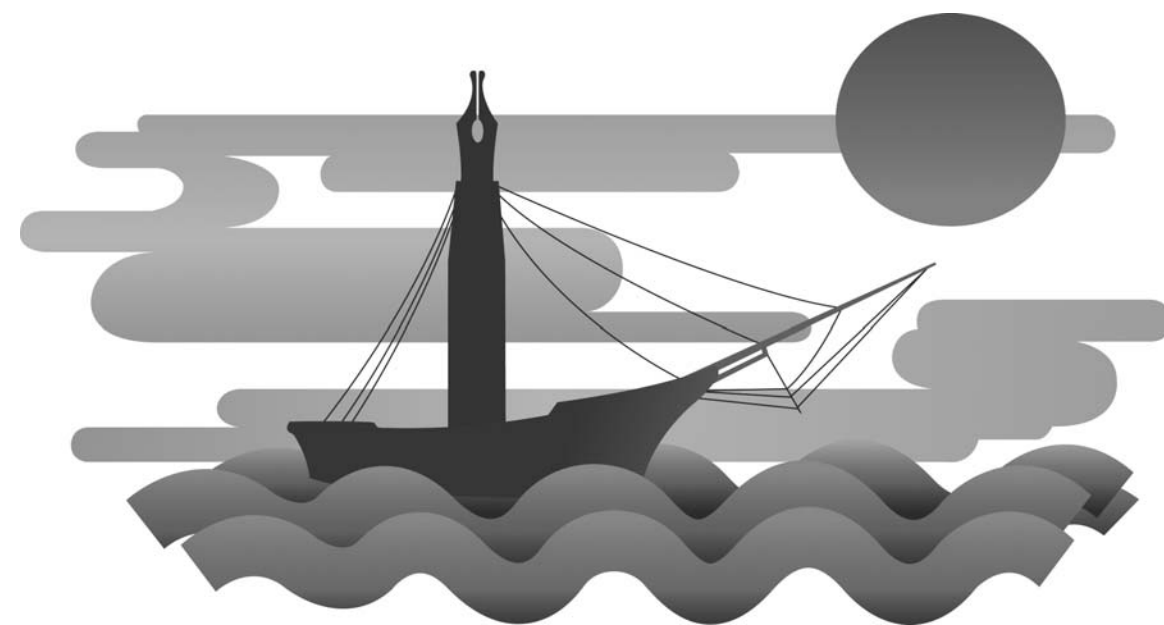
40년간 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명성을 이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는 최근 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올 4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제주칼호텔 영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제주칼호텔 인수 협상을 벌이는 서울 소재 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곳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마리나 호텔도 철거돼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1990년 마리나 호텔 인수 운영사는 최근 호텔 부지와 웨딩홀이 위치한 땅은 편 부지 전체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호텔과 웨딩홀 운영은 5월쯤 중단한다. 1989년 문을 연 마리나 호텔은 제주공항 인근 도로에 위치해 인근 사거리가 바리나호텔 사거리'로 불릴 정도로 제주를 대표하는 호텔 중 한 곳이었다. 유명 호텔들이 문을 닫으면서 폐업 이후 제주지역 경기가 걱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